

TV 3일

★이 프로그램은 방송사 사정에 따라 바뀔 수 있습니다.

채널A	KBS1	KBS2	MBC	KBC/SBS
6 50 이영돈 PD의 먹거리 X파일(재)	00 KBS 뉴스광장	00 코모닝 대한민국 1부~2부	00 MBC뉴스투데이 1~2부	00 소치 2014 특집 모닝와이드 1~2부
7	50 인간극장		10 광주 MBC뉴스투데이 50 MBC 아침드라마 <내 손을 잡아>	00 KBC 뉴스지금 30 남도의 아침
8 00 코모닝 A	25 아침이당	00 KBS 아침 뉴스타임	30 생방송 오늘 아침	30 아침연속극 <나만의 당신>
9 00 신문이야기 돌직구쇼	30 KBS 뉴스	00 TV 소설 <순금의 땅> 40 여유만만	30 MBC 생활뉴스 45 기본 좋은 날	10 좋은아침
10 10 팩트 10	00 무엇이든 물어보세요 50 TV 동화 별간자전기(재) 55 트윈생활제(재)	50 지구촌 뉴스		30 소치 2014 특집 SBS 뉴스
11 20 정치이야기 是是非非	00 러브 아시아(재) 55 바른말 고운말(재)	15 사랑의 가족 45 인간극장 스페셜(재)	00 MBC여성토론 워드	00 SBS 생활경제 40 KBC 생활뉴스
12 30 부부각성 공약지(재)	00 KBS 뉴스 12		00 MBC 정오 뉴스 20 TV속의 TV	00 소치 2014 특집 SBS12뉴스 20 다뤄로 만나는 세계 베스트
1 00 뉴스특보	00 TVO(고래재)	35 힐링 투어 야생의 발견(재)	20 MBC 네트워킹 특선	30 피우자 민들레
2 50 직인직설	00 콘서트 필(재) 40 남도지오그래피(재)	00 KBS 뉴스타임 10 세상의 모든 다류(재)	10 문화콘서트 난장 스페셜	00 소치 2014 특집 SBS 뉴스 10 네트워크 현장 고향이 보인다
3 00 뉴스토크	00 뉴스 토크	00 후토스 읽어버린 숲(재) 25 꼬마신선 티오(재) 55 TV유치원 골디공	00 MBC 경제 뉴스 10 키즈 CSI 과학수사대 40 헬로 키즈 블루윌라 동물여행(재)	10 우리이야기 달라졌어요(재)
4 00 박종진의 뉴스쇼 채도난마 1~2부	00 KBS 네트워크 특선 <행성탐색 온저오(재) 55 트윈 생활 제(재)>	25 고고 이야기 탐험대(재) 55 영마가 있는 풍경 마미도(재)	30 똑?똑! 키즈스쿨	00 안녕 자두이2 30 내 마음의 크레파스 스페셜
5	00 KBS 뉴스 5 20 동물의 세계 40 남도지오그래피		00 MBC이브닝 뉴스	00 SBS 뉴스퍼레이드 15 KBC저녁뉴스 30 날씨와 생활 35 세상에서 가장 아름다운 여행
6 00 채널A 뉴스 TOP10	00 6시 내고향 55 시청자클럽 우리 사는 세상	00 KBS 글로벌 24 30 생생 정보통	20 MBC 가요 베스트	05 세세포트
7 20 이제 만나러 갑니다(재)	00 KBS 뉴스7 30 우리말 겨우기	50 일일 드라마 <천상 여자>	15 일일연속극 <빛나는 로맨스> 55 소치 동계올림픽 특집 MBC 뉴스데스크	10 시시더지 떠떠떠떠 20 일일드라마 <달기운 딸 하나>
8 30 그때 그 사람	25 일일연속극 <사랑은 노래를 타고>	30 생생 정보통 플러스 55 위기탈출 넘버원	55 MBC특별기획 <제왕의 딸 수백향>	00 소치 2014 특집 SBS 8 뉴스 35 KBC 8 뉴스 55 오 마이 베이비
9 40 채널A 종합뉴스	00 KBS 뉴스9		30 컬투의 베란다쇼	
10 50 채널A 스포츠 뉴스	00 가요무대 55 문/화/산/책 포플러	00 월화드라마 <총리와 나>	00 월화특별기획 <기황후>	00 월화드라마 <피땀만 말 한마디>
11 00 스타 패밀리쇼(재)	30 KBS 뉴스라인	10 대국민 토크쇼 <안녕하세요>	15 특집 MBC 다큐스페셜 <1억년 불공룡의 비밀 2부>	15 힐링캠프 <기쁘지 아니한가>
12 10 이영돈·신동엽 토크쇼(재)	30 문화핵심	30 미리보는 2014 소치 동계올림픽 해외 걸작 드라마 <아틀란티스>	20 MBC 뉴스24 50 소치 특선 2014 소치 동계올림픽 특집 뜨거운 겨울 소치	35 소치 2014 특집 발을 쓰다



영화 '관능의 법칙' 간담회를 하고 있는 배우 조민수, 엄정화, 문소리(왼쪽부터)

“노출신 촬영 부담스럽지만 배우로서 숙명”

영화 '관능의 법칙' 엄정화·문소리·조민수 기자간담회

“실제 촬영 때는 더 길게 찍었어요. 그래서 마음이 굉장히 힘들었던 기억이 납니다.” 노출신과 관련해 부담이 없었느냐는 질문에 배우 엄정화는 이렇게 답했다. 28일 서울 롯데시네마 건대입구에서 열린 영화 '관능의 법칙' 기자간담회에서다.

영화에서 엄정화는 자신보다 한참 나이가 어린 남자와 사랑에 빠지는 방송사 PD 신혜 역을 맡았다.

“관능의 법칙”이란 제목에서 느껴지듯이 어느 정도 솔직한 신(Scene)은 필요하다고 생각했어. 물론 그런 장면을 찍을 때 부담

스럽죠. 그래서 감독님과 많이 상의했고, 보기에 심하지 않은 선에서 촬영했으면 좋겠다고 했습니다.”

영화에선 신혜와 그녀를 사모하는 외주제 작사 막내 PD 현승(이재운)의 꽤 농도 짙은 베드신이 있다.

권철인 감독은 “어떤 컷트는 엄정화 씨가 제발 쓰지 말아 달라고 해서 안 쓰려고 했는데, 편집 과정에서 그걸 쓰게 돼 영화를 엄청 화 씨에게 보여드렸다”며 “한 명에게만 영화를 미리 보여줄 수 없어 세 명의 배우들에게 모두 보여줬다”고 말했다.

도발적인 주부 미연 역을 맡은 문소리도 노출 장면과 관련해 “여배우로 살아가다 보면 (노출 장면은) 영화를 극장에서 내린 후 뿐 아니라 10년이 지나도 부담스러울 수 있다.며 ”그런 부담은 배우로서 가져가야 할 숙명”이라고 했다.

“관능의 법칙”은 어린 남자와 만나는 골드미스 신혜, 도발적인 주부 미연, 딸 몰래 연애하는 싱글맘 혜영(조민수)의 이야기를 통해 40대 여성의 사랑과 성(性)을 솔직하게 담은 영화다. 1억 원 고료의 시나리오공모전 당선작을 토대로 ‘싱글즈’(2003)의 권철인 감독이 메가폰을 잡았다. 영화는 오는 13일 개봉한다. /연합뉴스

돌아온 전통사극...역사왜곡 없이도 재미있네

KBS 1TV 사극 '정도전'

장년 남자들 주도 큰 인기

고려말 난세를 극복하고 역성혁명을 이룬 정도전의 파란만장한 생애를 그린 KBS 1TV의 정통 대하 사극 '정도전'(연출 강병택·극본 정현민)이 방송 초반부터 장년 남성들을 TV 앞으로 끌어들이며 호평받고 있다.

2년여 준비 기간을 거치며 제작진이 가장 심혈을 기울인 것은 사실 고증이다. 철저한 사실에 기초한 '사극다운 사극'을 내걸었다. 정현민 작가는 수십 권의 역사서 원전을 정독하고 역사학자들을 만나 자문했다. 등장 인물 모두의 전기를 찾아 참조했고 드라마 속 인물들의 직책은 실제 인물의 관직과 완벽하게 일치할 정도다.

드라마는 왕이나 귀족이 중심이 되는 사극이 아니라 정도전을 비롯해 나라의 운명과 백성을 위해 고민한 '정치인'들을 조명하고, 구시대와 유희물로 여겨지는 성리학을 젊은 학문으로, 패배주의로 여겼던 사대주의를 실용적이고 자주적인 외교 노선으로 새롭게 바라본다.

궁벽한 시골 향리 가문 출신으로 신진 관료가 된 정도전은 땅에 떨어진 대의를 바로 세우고자 노력하지만, 10년 동안 유배와 유랑 생활로 버티던 그가 백성의 존경을 받던



무장 이성계를 찾아가면서 역성혁명이 시작된다.

이성계는 고려인 혈통이지만 원에서 귀화한 탓에 정체성을 고민하며 반백이 될 때까지 전장에서 목숨을 걸고 전투를 치르며 충성심을 강요받은 슬픈 운명의 무장이었다. 그는 온화한 성품으로 사람의 마음을 움직이는 덕장 중의 덕장이지만, 내성적인 면도 있고 술을 마시면 가벼운 주사도 보이는 인간미 넘치는 캐릭터다.

국회의원 보좌관 출신인 정 작가는 현실 정치자를 보는 듯 노련한 정치인들의 불꽃 튀는 설전을 녹여내고 있다. 공민왕 사후 고려

왕실의 실권자가 된 이인임이 자신의 견제자로 관료에 임명된 정도전에게 “이제 말단의 환을 꾸렸으니 소원선취하찮습니까?”라고 묻자 정도전은 “이 정도도 되겠습니까? 늙은 호랑이 한 마리 정도는 때려잡아야 소원선취라 하겠지요”라고 응수한다.

철저한 고증을 바탕으로 한 탄탄한 이야기를 뒷받침하는 것은 배우들의 연기다.

정도전 역을 맡은 조재현과 노화한 권문 세력의 상징인 이인임을 연기하는 박영규, 이성계 역의 유동근, 최영 역의 서인석을 비롯한 배우들의 연기에 시청자들은 “1시간이 10분 같았다”며 몰입하고 있다. /연합뉴스

EBS		
06:10 디문화 고부 열전	<신호선의 무궁무진 겨울요리>	15:00 열려라 이비디스
07:00 미술탐험대	<비지 김치 등백제>	15:15 꼬마시디 마미코
07:15 정글북	11:20 세계대미기행	15:30 꼬마거북 크랭클린
07:30 부릉부릉 부르미즈	<중앙아시아의 거인, 키자흐스탄 1부>	15:45 외골와글 친구들
07:45 뽀롱뽀롱 뽀로로	<설원에 길을 놓다>	16:00 덩동덩 유지원(재)
08:00 덩동덩 유지원	12:00 EBS 정오 뉴스	16:20 케니멀
08:20 놀이터 구조대, 뽀잉	12:10 EBS 스페이스 공감1	16:30 부릉부릉 부르미즈
08:35 방과후집 뽀롱이	13:05 지식채널e 클래식	16:45 꿈디와 친구들(재)
08:50 꿈디와 친구들	13:10 겨울방학생활 1학년	17:00 방구대장 뽀롱이(재)
09:10 두디다콩	13:30 겨울방학생활 3학년	17:15 시계마을 리카
09:20 부모	13:50 겨울방학생활 5학년	17:30 뽀롱뽀롱 뽀로로
10:00 한국기행	14:10 배움나머(1)	17:45 놀이터 구조대 뽀잉
10:20 요리비전	14:15 탐기행가 이야기	18:00 미앤미로보
10:50 최고의 요리비결	14:30 꾸러기 상상여행	18:15 정글북

EBS플러스1		EBS플러스2	
00:00 알짜 귀여운법	11:40 최태성의 교과서에서 나오는 불교문화	07:00 2014 공인중개사 시험대비강좌	15:20 초등 1년 EBS 겨울방학생활
00:50 2013 논구술 (인문계 주제별 기술분석)	12:10 5분 과탐 <물리>	07:30 나의 성공비결	15:40 초등 3년 EBS 겨울방학생활
01:40 포스입속 <문학 I>	12:10 수능집합 <영어특혜 유형편>	08:00 9급 공무원 시험 대비 강좌	16:00 초등 5년 EBS 겨울방학생활
02:30 <문학 II>	13:05 <영어특혜 유형편>	08:30 점프고시 강좌	16:20 초등 개념 잡기 <국어>
03:20 <수학 I A형>	14:00 포스입속 <문학 I>(재)	09:00 출가문 수학 EBSMATH	16:40 나의 성공비결(재)
04:10 <수학 I B형>	14:50 <문학 II>(재)	09:50 <수학 I>	17:20 초등 개념 잡기 <국어>(재)
05:00 <미적분과 통계기본>	15:40 <수학 I A형>(재)	10:30 <역사 I>	18:00 TV 중학 <비문학 I>
05:50 <영어 구문 투어>	16:30 <수학 I B형>(재)	11:10 <국어 II>	18:40 <역사 II>(재)
06:40 <영어 특혜의 유형>	17:20 <미적분과 통계기본>(재)	11:50 <수학 II>	19:20 <국어 III>(재)
07:30 <고교 vocabulary>	18:10 <영어 구문 투어>(재)	12:30 중 1학습비법 특강 <국어>	20:00 <수학 I>(재)
08:20 <적분과 통계>	19:00 <영어 특혜의 유형>(재)	13:10 중 2학습비법 특강 <국어>	20:40 <역사 II>(재)
09:10 <기하와 벡터>	19:50 5분 과탐 <물리>(재)	13:50 중 3학습비법 특강 <국어>	21:20 <국어 III>(재) <문학 III>(재) <비문학 III>(재)
10:00 <적분과 통계>(재)	20:00 포스입속 <고교 vocabulary>(재)	14:30 <수학 II>(재)	22:00 <문학 III>(재) <비문학 III>(재)
10:50 <기하와 벡터>(재)	22:00 <기하와 벡터>(재)	15:10 스물렌드	22:40 <국어 III>(재) <문학 III>(재) <비문학 III>(재)

知天命이 오는 **오늘의 운세** 2월 3일 (음 1월 4일 乙巳)

<p>子 36년생 돈 때문에 많은 일들이 발생했다. 48년생 꽃피는 봄날을 맞이하게 된다. 60년생 기준이 분명해야 한다. 72년생 타당성에 대한 냉철한 고찰이 필요한 때이다. 84년생 사려 깊어 처리해야겠다. 행운의 숫자 : 05, 64</p> <p>丑 37년생 임시방편적인 대처는 오래가지 못 하리라. 49년생 다소 생소할 것이다. 61년생 경험을 되살리다면 충분히 도약할 수 있겠다. 73년생 큰 문제는 없으니 마음 놓고 대할만 하다. 85년생 재반사가 풀려 간다. 행운의 숫자 : 27, 73</p> <p>寅 38년생 상대적이니 만큼 처세를 잘 해야 하느니라. 50년생 처음처럼 깔끔하게 해나가지 않으면 부실해지기 쉽다. 62년생 균형 잡힌 관계를 유지하는 것이 중요하다. 74년생 인간관계에 불협화음이 들린다. 행운의 숫자 : 40, 06</p> <p>卯 39년생 주변의 아픔들이 보인다. 51년생 앞뒤 가리지 말고 무조건 밀어붙이면 성사된다. 63년생 계획을 세우고 난 다음에 실행해나가는 것이 순서이다. 75년생 정성을 다 한다면 좋은 결과를 얻으리라. 행운의 숫자 : 19, 28</p> <p>辰 40년생 실의의 관점에서 살펴보는 것이 합리적이다. 52년생 오히려 인한 충돌이 보인다. 64년생 부담스러워해 왔던 짐을 덜게 될 것이다. 76년생 좀 더 넓은 범위까지 인식하는 것이 결과적으로 낫다. 행운의 숫자 : 80, 58</p> <p>巳 41년생 유능한 이들과 함께 길사를 도모할 수 있겠다. 53년생 연쇄적인 효과를 보게 되면서 작용력이 커진다. 65년생 경사가 나서 퍼뜩한 모습이다. 77년생 상대는 다 알면서도 내 숨을 쉴고 있느니라. 행운의 숫자 : 88, 01</p>	<p>午 42년생 액면 그대로 받아들이는 것이 낫다. 54년생 합당한 조치를 취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66년생 가장 주변 일에 매진하다보면 부수적인 문제는 자연히 해결된다. 78년생 현실성을 반영하는 것이 옳다. 행운의 숫자 : 59, 81</p> <p>未 43년생 아무런 소용이 없느니라. 55년생 기준의 상환보다 훨씬 나은 쪽으로 변경되는 모습이다. 67년생 훌륭한 경험이 될 수 있다. 79년생 앞뒤를 잘 가려서 대응하지 않으면 헛수고가 될 가능성이 높다. 행운의 숫자 : 92, 51</p> <p>申 44년생 필연적인 형국이다. 56년생 책임의 한계를 분명히 해두지 않으면 말썽의 소지가 크다. 68년생 분명한 형식을 갖추어서 체계를 세울 필요가 있다. 80년생 대단히 좋은 결과를 얻을 수 있겠다. 행운의 숫자 : 52, 12</p> <p>酉 45년생 뜻밖의 좋은 일을 만나겠다. 57년생 문제의 장본인과 우연히 맞닥뜨릴 수도 있다. 69년생 겉으로는 평범해 보이지만 내면은 아주 특별하다. 81년생 귀인과 소중함 인연을 맺게 되는 날이다. 행운의 숫자 : 13, 34</p> <p>戌 46년생 차근차근 진행한다면 큰 발전을 꾀할 수도 있느니라. 58년생 자연스럽게 추진하는 것이 중요하다. 70년생 맹목적이 라면 무의미할 뿐이다. 82년생 과정은 힘들겠지만 결실이 많고 알찰 것이다. 행운의 숫자 : 94, 53</p> <p>亥 47년생 소관 사항이 아니라면 관여할 필요가 없느니라. 59년생 하던 일을 중단 시키는 이변이 발생한다. 71년생 상대의 평은 의미가 없으니 자신의 판단을 중시하라. 83년생 크게 각광 받게 되는 날이다. 행운의 숫자 : 71, 87</p> <p>“전화상담도 받습니다. 광주일보 독자원영” ☎010-9790-8237</p>
---	---

TV 하이라이트

<p>'순백의 세상' 소백산의 겨울</p> <p>한국기행(EBS·밤 9시30분)은 산세가 웅장하면서도 부드러운 '어머니의 산'으로 불리는 소백산. 겨울의 소백은 그 풍경이 절정에 달하는 때이다. 새파란 하늘 아래 눈꽃이 반기고, 정상에 서면 산봉우리들이 하얀 능선을 이루고, 눈이 시릴 만큼 온통 순백의 세상으로 뒤덮이는 곳. 이곳에서 즐거움을 찾는 사람들이 있다.</p> <p>눈 쌓인 소백산 등반길에 오를 산악회 사람들이 어둠속에서 비로봉을 거쳐 국망봉에 이르기까지... 소백산을 제집 드나들듯 날렵하게 오르는 프로들이지만 겨울 소백산은 오를 때마다 매번 새로운 기쁨을 준다. 눈 쌓인 소백산에서 통심으로 돌아가 한바탕 뛰노는 사람들 눈썰매도 타고 눈싸움도 하고 소박하게 썩 도시락 나눠 먹으며 소백을 만끽한다.</p>	<p>150년 고택서 만난 '하루'의 기억</p> <p>인간극장(KBS1·오전 7시30분)은 경북 영주, 150년의 세월을 머금은 고택이 있다. 이곳에 종갓집 며느리 임숙빈(62)씨 가족이 살고 있다. 20년간 홀로 고택을 지키고 있던 아버지를 돕기 위해 3년 전 오랜 외국생활을 접고 들어온 임숙빈·전준호(58)씨 부부. 그러나 고택에 들어오자마자 숙빈 씨를 가장 먼저 맞이한 것은 폐암 말기 선고였다.</p> <p>아픈 며느리를 위해 일년에 열여섯 번의 제사를 과감히 없애 시아버지와 밤낮 아궁이 앞을 지키는 남편, 그리고 150년 된 고택의 기운 덕분일까 숙빈 씨의 건강은 조금씩 치유되고 있다. 우연 고택이 만든 기적이 다. 평범하지만 가장 소중한 오늘 '하루'의 기억을 150년 전통의 우엄 고택에서 만나 본다.</p>	<p>지역아동센터 아이들의 꿈</p> <p>세상에서 가장 아름다운 여행(SBS·오후 5시35분)은 충남 금산군에 자리한 레인보우 지역아동센터. 일곱 빛깔 무지개처럼 다양한 아이들의 꿈이 빛나는 이곳엔 30여 명의 아이들이 저마다 꿈을 키워나가고 있다. 아이들에게는 꿈의 터전과도 같은 이곳이기에 선생님들 역시, 다채로운 프로그램을 통해 아이들이 많은 경험을 쌓고 보다 큰 꿈을 꿀 수 있도록 노력을 기울이고 있는데... 다양한 수업 중에서도 아이들이 가장 좋아하는 시간은 목공 수업시간이다. 하지만 녀석지 못한 센터 현형상 프로그램이 지속적으로 운영되기는 힘든 것이 현실이다. 몇 개월에 한 두 번, 그것도 쓰다 남은 나무를 재활용해 수업 재료로 활용해야 하는 상황이지만 아이들은 그저 목공수업을 할 수 있다는 것만으로도 즐겁기만 하한다.</p>
---	--	--